

붕괴하는 한국출판, 대안은 없는가?

자사 이기주의가 출판의 위기 불러와...

대승적 견지에서 도서 유통 거래조건 전면 재검토해야

한기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도서정가제 붕괴, 소매서점 폐업, 사재기 만연 등 최근 우리 출판계에 벌어지는 위기는 출판사, 도매상, 서점 등 3자간에 지켜져야 할 호혜적인 원칙이 사라지고 오로지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주의가 만연한 데서 기인한다. 공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판사, 도매상, 소매서점 3자가 다시 모여 거래조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공평하고 적절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에서도 출판문화를 희생시키기 위한 방안을 하루 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다.

1년에 1천개사가 넘는 소매서점 폐업, 50%가 넘는 서적 반품률, 도매상의 급격한 퇴조,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한 책 사재기 만연, 도서정가제의 실제적인 붕괴, 할인 온라인서점들의 과다한 출혈 경쟁, 팔리는 책과 팔리지 않는 책의 첨예한 양극화, 대형서점들의 할인경쟁 가세(비록 온라인서점에 서지만) 등 출판·서적계에 한결같이 어두운 소식밖에 없다.

이런 소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출판은 위기에 처해 있었다. 원래 책의 위기는 디지털 혁명으로 예언됐던 바다. 일찍부터 '돈'과 '정보'를 다루는 업종은 정보기술(IT)에 의해 혁명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상돼왔다. 책은 전자상거래에 가장 알맞은 상품일 뿐만 아니라 출판업이 다루는 문자정보 및 이미지정보와 같은 콘텐츠는 물류를 동반하지 않고 인터넷상을 자유롭게 떠다닐 수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내부 분열로 고사 위기에 처한 출판현실

흔히 정보기술에 의한 출판 혁명으로는 책 생산과정의 디지털화, 온라인서점으로 대표되는 서적유통시스템의 변화, 'e-북'으로 대표되는 책 생산개념의 변화 등을 들고 있다. 이런 변화 때문에 앞으로 출판에서는 서점, 도매상, 출판사 등 중간과정은 모두 생략되고 저자와 독자가 인터넷에 의해 직접 연결돼 작품(책)의 교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우리 출판은 이런 문명사적인 엄연한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보기도 전에 내부 분열로 인해 스스로 고사할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출판계에서 벌어지는 위기는 문명사적 전환의 추세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출판사, 도매상, 서점 등 3자간에 지켜져야 할 호혜적인 원칙이 사라지고 오로지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주의가 만연한 데서 기인한다.

원칙은 온라인서점들이 먼저 무너뜨렸다. 온라인서점들은 이익을 전혀 내지 못하면서도 매장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등의 절감을 통해 얻은 이익

을 독자에게 환원해준다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걸고 시장잡식을 꾀해왔다. 도서정가제의 반사이익을 누리오던 그들은 그들간의 경쟁이 격화되자 과다한 할인경쟁을 벌여왔다. 최근 몇 년간 급속하게 시장을 키워오던 온라인서점들은 정가의 50%가 넘는 과다한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객만 이동할 뿐 전체적인 매출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당혹감에 빠져 있다.

현금결제와 무반품을 자신들의 장점으로 내세우던 온라인서점들이 비록 일부 업체이긴 하지만 어음으로 책 대금으로 지불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가 하면, 일부 업체는 과다한 재고와 반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생존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그들은 출판사들에게 최근 책의 입고가를 낮춰줄 것을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런 온라인서점들의 공세에 시달리던 소매서점들은 음성적인 할인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할인판매는 그들의 생명만 단축시킬 뿐이다. 그래서 많은 서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작년엔 1,100여개 서점이, 올해는 360여개 서점이 이미 문을 닫았다.

서점의 반품률 급증으로 출판사의 자금악화 심각해

소매서점들의 폐업으로 인해 반품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6월에 출판사 영업자들은 대부분의 지방도시 도매상에서 책 판매대금을 지불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도매상들이 문닫은 소매서점들에 과입됐던 금액을 내주다보니 지불할 돈도, 지불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서점의 도산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한 도매상은 목표의 한 서점이 도산해 약 2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손실은 그 도매상이 6개월 동안 영업해 남길 수 있는 이익과 맞먹는 금액이다.

이런 반품은 고스란히 출판사로 되돌아가고 있다. 그로 인해 출판사들의 경영상태는 심각한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일부 유명출판사들마저 자금

악화로 인해 인세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전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상황만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만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부터 온라인서점을 보유한 일부 대형서점들이 300~500여종의 신간 및 베스트셀러에 한해서 일제히 한시적인 할인 이벤트를 벌였다. 이들이 벌인 이벤트의 명분이 무엇이든간에 그들은 도서정가제의 와해 촉진과 책값에 대한 독자들의 불신만 더욱 가중시켰다. 대형서점에서도 출판문화는 '구약(舊惡)일 따름이며, 오로지 그들이 믿는 절대선은 눈앞의 이익일 뿐이었다.

할인 온라인서점들이 할인할 때는 그런 대로 참아주던 독자들이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들이 할인 이벤트를 벌이자 이제 오프라인서점에서도 무조건적인 할인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할인을 해주지 않는 서점의 대표를 독자들은 과다한 이익을 챙기는 '악덕업주'로 몰아세우기까지 했다. 문화를 진작시킨다는 자부심으로 억지로 버티던 소매서점들은 최근의 변화로 인해 심한 절망감에 휩싸이고 있어 서점의 폐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양극화에 따른 왜곡으로 표출된 사재기 파문

대형서점과 영세소매서점에 끼어 있던 중·대형서점들이 지난 7월 5일에 결국 현행 온라인서점의 할인판매 등 책값 할인판행이 중단되지 않으면 오는 10월부터 무한할인경쟁을 통해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의 선언은 어떻게든 이겨서 살아남겠다는 결의라기보다는 폐점을 위한 명분축적과 마지막 '재고떨이'로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그 다음의 수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형서점들마저 할인판매에 돌입하면 교보문고와 같은 대형서점들은 곧바로 못 이기는 척 하며 할인판매에 편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 벌어져 일부 상업적인 출판물을 제외하고는 생산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미 출판시장은 지난해부터 밀리언셀러가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책은 거의 팔리지 않는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다. 자기 책 '사재기'는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왜곡된 몸부림'의 외부 표출이었다.

지금 일부 출판사들이 도서정가제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책값의 인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런 미봉책만으로는 상황이 개선될 리 만무하다. 이제 곧 출판사들의 도산, 지업사·인쇄소·제본회사 등 관련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이 줄을 이을 것이다. 지난 1998년 IMF 직후의 연쇄도산 때는 그나마 '쓰러진 벼'라도 세우며 미래를 기약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위기로 연쇄도산이 초래된다면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절망감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비록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지만 출판·서적업계는 하



요즘 서적·출판계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중소형 서점의 폐업, 도서정가제 붕괴, 사재기 파문 등 어두운 소식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제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사진은 한 도매상의 물류창고.

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대책은 소아는 버리고 전체를 살리는 대승적인 안이 돼야 한다. 출판사, 도매상, 소매서점 3자가 다시 모여 거래조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공평하고 적절한 조건을 마련해야만 한다. 지금은 원칙이 실종되고 없다. 원칙이 실종되고서는 그 어떤 것도 대안이 될 수 없다.

국가에서도 출판문화를 회생시키기 위한 방안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다. 21세기에 가장 가능성이 큰 산업은 콘텐츠산업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영상,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등에 한정되던 콘텐츠 산업은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문화·예술, 정보, 지식 등 전 분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런데 콘텐츠 산업의 기반은 바로 출판이다. 출판을 죽이고서야 무엇인들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문화관광부가 신청한 내년 예산 가운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50억원을 전액 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문화콘텐츠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말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도서정가제 '과과공작'을 통해 출판문화의 압살을 끊임없이 기도해왔다.

이제 외부의 조건에 의해 책 시장을 진작시킬 길이란 모두 사라지고 없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출판문화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는 오로지 내부 종사자들의 굳은 결심과 공덕심을 바탕으로 한 중대한 결단이 필요할 뿐이다. 작고 사소한 일에 사사건건 부딪치며 분열과 음해를 일삼는 것을 즉각 중지하고 대단결을 통한 자구안을 촌음을 아껴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일에 관련종사자 모두의 적극적인 개입과 분발, 특히 업계 리더들의 각성을 촉구한다.●